

중단 중앙신도 조직 대부분 유명무실

재정·인적자원 확보 어려워

상당수 중단의 중앙 신도조직이 유명무실하거나 지역 사찰 중심으로 돼 있어 교세 확장과 포교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중 절반이 넘는 15개 종단은 전국 신도조직이 있으나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신도조직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조직화된 신도조직은 각 종단의 교세확장은 물론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계종을 제외한 다수 종단들이 전국 규모 신도조직보다는 지역 사찰 중심의 소규모 조직에만 의존하고 있어 종단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신도조직이 소외되거나 성과가 미온적이기 일쑤다.

전국신도회가 구성돼 있는 태고종(총무원장 운산도) 2004년 이후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활동도 거의 없는 편이다.

종단 행사를 하면 중앙 차원에서 조직되고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기 보다는 해당 지역 지방 중무원에서 신도동원이나 진행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큰 행사나 불사를 기획해도 신도동원과 모연금 마련은 언제나 하는 곳에서만 책임지게 되는 현행일률적 모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교세확장과 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신도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태고종은 새 조직 정비에 나섰다. 태고종은 이달말까지 개별 사찰 신도회 대표를 중심으로 교구별 지방신도회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신도회 조직을 완료할 방침으로 신도회 전산화 작업도 하고 있다.

군소종단일수록 신도 조직의 유명무실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A종단은 창종 이래 한번도 전국 규모 신도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

이 종단은 종단차원의 행사를 하면 총무원장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는 사찰에서 주로 인원이 동원된다. 그러다보니 종단 행사가 총무원장 사찰의 개별 행사로 전락하고 말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때문에 총무원장스님과 친분 관계가 없는 사찰의 주지들은 아예 종단의 공식행사에 참석조차 않는 일도 벌어진다.

그나마 중앙 신도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B종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도회가 있지만 자체적인 예산마련이 힘들어 전폭적으로 종단 지원을 받다보니 신도회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종무원 역할만 하기에 급급하다.

태고종 사회부장 벌현 스님은 "신도조직 정비는 교세확장을 위해 분명히 필요하지만 교세가 약한 종단일수록 재정마련이나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거의 조직화 되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신도들에게 종단 사업이나 행사에 자주 참여시키고 조직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소 종단들은 보통 여력이 안되다보니 각 지역의 당해 사찰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찰중심으로 신도조직이 이뤄지고 있어 중앙차원에서의 신도회 결성에 어려움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부 결속력과 재원 마련이 시급한 군소 종단일수록 전국 규모의 신도조직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

서울의 첫 천태종 유치원

구강사, 내년 3월 개원

서울 천호동 천태종 구강사주지 감지스님은 서울 강동 교육청로부터 8월 31일 '구강사 유치원' 설립을 정식 인가받았다.

구강사는 2007년 3월 구강사 1~2층(총면적 300평 규모)에 5~7세의 유아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체육관, 4개의 교실을 갖춘 유치원을 개원한다. 구강사 유치원은 유아들에게 △효와 예절 △명상(정신 집중) △건강한 신체 △한글 원리를 통한 언어 교육 △불사 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강사 주지 감지스님은 "구강사 유치원은 유아의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며 "예절과 도덕, 티베트 요가와 기공 체조시간을 갖고 직접 제작한 교재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강사는 전국 천태종 사찰로는 여섯 번째로,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됐다.

한편 구강사는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유치원 교사 5명을 모집한다.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불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02) 479-4450-2

김주일 기자



내년 3월 강동구 구강사 1~2층에 개원예정인 구강사 유치원 전경.

진각종 韓-스리랑카 학술대회

11월 27일~12월 2일 콜롬보서

진각종 회당학회(회장 혜정 정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 켈레니아대학에서 제 4회 한국·스리랑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남인도의 대승불교와 밀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회당학회와 켈레니아 팔라보대학이 공동 주관하며, 회당학회 회원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 다. 회당학회는 국제학술대회에 이어 남방 불교 유적지 및 세계 8대 불가사의인 시리아라 등을 탐방하고, 네코보 JGO센터 개원 기념 공식행사도 주관할 예정이다.

회당학회는 2002년 회당 대중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중국 법문사에서, 2004년에는 한·일 학술대회를 일본 고야산대학에서 개최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총지종 9월 8일 멸도절 추선불사

총지종은 창종주 원정 대성사 열반 26주기 멸도절 추선불사(추모법회)를 9월 8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한다.

효강 종령은 "종단도 창종 당시의 강한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때"라며 "이번 추선불사는 종도들에게 중추 역할을 받들어 가치관이 혼란스런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웅종, 국운융창 수륙대법회

원웅종은 9월 12일 오전 11시30분 총주 중앙탑 공원에서 '국운융창 및 호국영령과 선망부도 왕생극락 수륙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산재 시연에 이어 총무원장대행 선전 스님의 법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周易講義의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부처님 법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마는 부처님 법을 중생제도 하기에 알맞은 방편인 신비한 오행비법이 바로 강의속에 있으니 선지식의 스님을 앞에 감(敢)히 머리조아려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뜻있는 불자님들도 이곳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을 비워보세
그리고 나면 나를 볼 것이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믿을 줄 알아야 하네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어 트겠는가?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장 소 : 寶明寺 (보명사)
- 개강일시 : 2006년 9월 23일 / 매주 2회 (토, 일요일) 오후 3 ~ 5시
- 수 강 료 : 월 12만원 삼개월 과정 (총 36만원)
- 강의내용 : 전화문의 • 강 사 : 방 필 석居士
- ※ 특전 : 수강료 일시불, 매번 강의 무료. 스님은 필기도구 및 교재무료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방향, 마을버스 06번(범원단지행 보명사) 마을버스에 표시
- 문의 : 02)738-2045 ※ 스님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재단법인 선학원 寶明寺보명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3동 610-281호



국수 한 그릇에 군생활 고충 '홀홀'

8월 30일 오전 10시,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대전 구암사. 법회가 있는 날도 아닌데 10여명의 보살들이 사찰을 찾았다. 매주 수요일마다 32사단 호국대원사 법회에 참석하는 장병들에게 먹일 국수를 삶기 위해서다.

대전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보살들은 후원으로 향했다.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버섯 양파 등 갖가지 야채를 집어넣었다.

내 아들같은 군인들이 먹는 음식이기 위해 조리료를 넣지 않고 야채로만 맛을 낸다. 천연 재료로 맛을 내기란 쉽지 않은 법. 장작불로 하루 종일 살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있다.

국수도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대신 대

구암사, 15년째 장병대상 국수 공양 버섯·양파 등 온갖 야채로 국물 내고 수타면 이용...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대전 구암사 신도들이 8월 30일, 32사단 호국대원사 수요법회에서 훈련병들에게 국수를 나누어 주고 있다.

15년전부터 지역 군법대인 대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떡, 과일 등을 지원했으나 겨울철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좋겠다는 생각에 국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회 시간이 다가오자 하루 종일 끓인 육수와 삶은 국수를 아이스 박스에 담아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호국대원사 관기원 군법사도 부대에서 1톤 트럭을 지원받아 구암사를 찾았다. 오후 7시 법당을 찾은 장병들이 맛있게 국수를 먹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대원사 수요법회에는 32사단 신병교 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을 위주로 법회를 보고 있다. 이날도 100여

훈련병들이 법회에 동참했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원에서는 구암사 보살들이 장병들에게 국수를 주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삶은 국수를 그릇에 담고 육수만 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후원 훈련병이 국수 그릇이 차곡차곡 쌓였다.

"아들아, 잘 먹어라."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법회가 끝나자 군중들의 안내에 따라 훈련병들이 차레로 국수를 받아 먹기 시작했다. 군에 입대하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황순형 훈련병은 "마치 어머니가 집에서 국수를 해 주시는 것같이 맛이 있다"며 "법당이 오면 법사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국수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연신 웃는다.

관기원 군법사는 "지역 사찰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주어서 감사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군법당과 결연을 맺고 후원을 해 준다면 군포교는 물론 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경애 후원 석가모니불상(제료:불)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